



## 서울의 근로자 건강관리센터, 서울산업보건센터

편집실



이세훈 지부장



최양호 사무국장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센터 방향인 4번 출구로 향하니 낮시간인데도 직장인들이 바쁘다. 70년대 이곳은 그 당시 가장 역동적인 공간이었던 구로공단이다. 역이름도 ‘가리봉역’이었다. 지금은 아웃렛 매장과 ‘디지털’이 들어간 역명처럼 IT의 메카가 되었다. 거리에는 작업복 대신 정장이나 캐주얼 차림의 근로자들이 많이 보인다. 옛 구로공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 역에서 3분 거리, 서울센터에서 2분 거리다. 속칭 ‘벌집’으로 불렸던 그 당시의 방들. 좁은 부엌, 얇은뱅이책상, 개어놓은 이불 만으로도 짝 차버린 방. 구로공단 ‘여공’의 팍팍한 삶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삶 가까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며 오랜 세월 같이한 곳이 바로 ‘서울산업보건센터’이다.

건강진단팀





환경위생팀

유재모 환경위생팀장



윤영지원팀(왼쪽부터 이지훈 차장, 김민정 과장, 최양호 사무국장, 김경동 과장)



김종철 건강진단팀장

서울센터는 1966년, 경인지부 결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영등포 산업보건서비스센터'가 개소되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낯선 단어인 '인간공학'이 태동한 곳도 서울센터이다. 당시 작업장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공감조차 없었다. 근로자 건강보다는 '생산성'을 최상의 과제로 취급하던 시절이다. 그 시절에 '근로자 건강'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니 서울센터의 초창기는 녹록치 않았다. 그 때의 어려움을 떨치고 서울센터는 2001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다. 현재, 서울센터는 총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진 근로자 변화를 보면 한국산업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김종철 건강진단팀장은 "주변 지역이 '수출업종'에서 'IT', '패션 아웃렛' 등 서비스업으로 교체'되면서 검진 대상 근로자를 찾아가는 이동시간이 길어졌다고 한다. 이동거리보다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이다. 공급했다. 주변 아파트형 공장에 많은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어 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지 않은가.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유재모 환경위생팀장의 대답이다. 우선 출입이 어려워 대상 사업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작업환경측정 독려를 '서울센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서울에 노동지침이 7개소가 있어 빠



보건관리팀(왼쪽부터 김은경 대리, 김명호 팀장, 이강희 사원, 송명숙 대리, 김정은 대리, 김정희 대리, 김희영 대리, 김진수 사원)

김명호 보건관리팀장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



60~70년 근로자의 삶을 보여주는 쪽방

른 대처가 어렵다고 한다.

서울센터에는 새롭게 마음을 다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김명호 보건관리팀장은 “다행히 사업장 담당자와의 오랜 신뢰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한다. 신뢰로 다져진 인연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서울센터를 찾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센터는 한번 맺은 인연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01년,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아름다운’의 무료검진을 15년째 지속하고 있다. ‘아름다운’은 다운증후군 등 중증장애인들이 일하고 있



는 사업장이다.

15년 전, 그들은 '근로자'로서 검진을 받은 권리가 있는데, 선뜻 나서는 검진기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서울센터가 흔쾌히 검진한 것이 인연이 됐다.

서울센터는 근로자와 인연, 사업장과의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산업보건'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안전진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실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의 안전보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전화 : (02)866-9507

